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에 관한 연구

- 태풍·폭우·폭염에 대한 주요 일간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

조항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 가운데 2012년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 폭우, 폭염이라는 기상재해에 대한 주요 일간신문의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도특성, 뉴스 정보원 활용,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보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해당 재해의 발생기간 동안 소나기식으로 언론보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해설/분석'이나 '기획/연재' 등의 심층성 높은 기사보다는 대부분 기본정보 중심의 '스트레이트'형식의 기사가 많았다. 보도내용은 '재해정보', '피해상황'에 집중되어 재해 예방 및 향후 유사 재해의 대처를 위한 방재 정보제공에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스 정보원의 활용경향은 기상재해에 대한 보도인 만큼 '기상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전문가' 활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도의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별로 재해보도의 프레임유형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피해/대응 정보 프레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재해보도의 감성화, 실용성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우리 언론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재해보도, 위험커뮤니케이션, 뉴스 프레임

1. 서론

해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기상재해가 세계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여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다. 2012년 7월 19일에는 제7호 태풍 '카눈(KHANUN)', 8월 28일에는 제15호 '볼라벤(BOLAVEN)', 8월 30일에는 제14호 태풍 '덴빈(TEMBIN)', 9월 17일에는 제16호 태풍 '산바(SANBA)'의 연이은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한 해 동안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62년 이후 50여년 만에 관측된 일이다. 8월 중순부터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8월 10일에서 22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은 212.2mm로 평년대비 187%나 증가하였다. 태풍과 폭우에 이어 폭염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났으며, 1973년 관측 이후 평균기온은 역대 2위(27.5°C), 폭염 일수역대 5위(13.4일), 열대야 일수는 역대 1위(9.1일)로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관계부처합

동, 2012). 기상재해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여름에는 4개의 태풍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에 3,0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98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되었다. 기상이변에 따라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은 물론 농산물가격의 급등, 산업피해, 질병의 증가, 위험회피(보험)비용의 발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선행, 2010). 이와 같이 기상재해가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위험(risk)기제의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상재해 등과 같이 다변화된 위험요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으로 초래된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그리고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위험사안들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표되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대응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상당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고,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상의 외로 클 뿐 아니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Powell & Leiss, 1997), 위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간의 인식공유과정인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원활하려면 각 구성원들을 매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디어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위험 이슈를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보 및 뉴스를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나 재해 등 위험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은 사건을 보도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사건의 문제점을 예견해 주어 ‘사회적 긴장도’, ‘창조적 긴장도’를 높이는 데 일조해야 한다(Singer & Endreny, 1993). 즉,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기능뿐만 아니라 경고·계몽과 같은 지도(指導) 그리고 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언론은 여전히 기상재해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도보다는 피해 상황을 나열하는 기존 보도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사전에 재난 대책 등을 점검하거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등을 내놓지 못하며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상재해 가운데 위험과 피해 강도가 매년 증폭되고 있는 태풍, 폭우, 폭염¹⁾을 그 대상으로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에 대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론 및 그 한계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 재해보도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현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기존연구 검토

- 1) 기상재해 보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매우 희박한 수준이며, 특히, 세 가지 이상의 재해를 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기상재해의 특성을 동시에 분석하면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에 대한 경향성을 일반화하고, 학술적으로 논의하는데 더욱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위기상황에서 재해보도의 역할론

일반적으로 재해는 돌발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재해에 대한 대비는 매우 한정적이며, 대규모 재해의 발생 시 대처 능력 역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해 발생의 예측 단계에서부터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 유관기관들의 총체적인 통제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언론기관은 이러한 사회적인 유관기구들 사이에 개입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 볼 수 있다(Sandman, 1988). 이러한 재해보도는 일종의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²⁾으로 재해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모든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통신, 전화 등 -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총칭한다(구수원, 1999).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으로 대표되는 기상재해 상황에서의 보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재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야하므로 재해의 정도와 세기 혹은 피해 상황 등의 사실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재해가 어느 정도 수습 단계로 들어가면 재해의 원인과 피해규모에 대한 재정리가 요구되며, 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로 된다. 나아가 재해에 대한 복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조차 유사 재해 발생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후속보도가 이어져야 한다(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요컨대,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국민 모두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상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방재에 대한 장기대책을 세우는 데 있다. 즉,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해현장을 지켜보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재해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보도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기능과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재기능 및 피해복구 등 단계적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송종길, 2003).

재해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제2의 방재기관으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에서 준방재기관의 역할을 하는 NHK의 존재감이 대단히 크다는 평가이다. NHK는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사전에 세워두고 있는데, NHK의 계획은 공공방송으로서의 사명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방재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각 부문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

2)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의 요소 및 요소 간 편익과 비용의 관계, 위험발생원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위험관리라는 총체적인 구도 속에서 개념화되는데,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코벨로 외(Covello, *et al.* 1986)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이해관련 집단 간에 신체적·환경적 위험의 수준, 위험의 중요성이나 의미, 위험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결정·행동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조사평가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위험과 관련된 개인, 집단, 조직 간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또한 밀레티와 피츠패트릭(Mileti & Fitzpatrick, 1991)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위험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제공, 예방행위를 촉구하기 위해 경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히 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하고 있다. 내용은 방송에 의한 방재사상의 보급(재해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부터 재해에 관련된 해설,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적극 편성하는 등 시청자의 재해 예방, 응급조치, 피난 등 방재에 대한 인식향상에 노력), 방재훈련, 방송대책(외국인, 시청각 장애인 등에도 배려), 지방공공단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대한 예보, 경보 등의 방송, 수신대책(피난지에 수신기의 대여, 설치대책)등이다(채성혜, 2013).

2. 관련 기존연구 검토

1) 재난·재해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국내 재해보도는 물론 재해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지만, 제2의 방재기관의 역할보다는 특종보도, 경쟁보도 등에만 충실하여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의 재난·재해 관련 연구에서 제기되어왔던 국내 언론보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재난·재해보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한 김성재(2003)의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언론이 국민을 흥분시키고 자극하는 선정적 재난보도에 정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경향은 의연하게 재난을 대처해야 할 시청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구명이나 재난구호를 등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에 대한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기사를 분석한 김만재(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난 보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기예보를 활용한 사진 경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의존이미지라는 재난신화를 만드는 일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경미·최낙진(2008)의 연구에서는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에서 제주지역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방송사에서 단순정보전달 위주의 단발성 스트레이트기사가 소나기식으로 보도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보도 내용에서도 피해상황, 복구 활동 등을 보도하는데 초점(사후 자원동원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두고 있는 반면, 사고의 원인 혹은 책임규명 그리고 사후대책과 관련한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에 소홀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연(2008)은 국내의 재난보도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권고했는데, 다른 재난관리기관을 비롯하여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게 아니라, 선진화·전문화된 재난보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난방송의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재난보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민규(2011)는 한·미·일 재난보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언론이 재난·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분석했는데, 일본의 경우 재난관련 보도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처지에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공포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도태도를 보여주었고, 미국은 보도의 초점이 복구와 주위로부터의 격려와 도움을 촉구하는 분석적 프레임에 집중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단발성 소나기식 ‘소방보도’나 자극적이고 사건에 앞서가는 속보성 선정정보도, 시신 노출 같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보도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음을 비판하고 있다.

유사하게 재난·재해 방송에서 방송의 역할론을 제시한 지성우(2011)의 연구에서는 우리언론이 그동안 국가안보, 국민 생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떤 접근방식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선정주의적 보도, 한견주의적 보도, 황색저널리즘이 난무하였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치중했으며, 불분명한 취재원에 의존하여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유재웅·조윤경(2012)의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에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폭설과 폭우 보도를 지상파 3사와 일간신문(동아일보, 한겨레)을 통해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비공식 정보원이 공식 정보원보다 많이 이용되었고, 전문성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민제작 콘텐츠의 비중은 14%로 나타났다. 피해상황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내의 재난·재해 상황은 아니지만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국내신문의 보도행태를 분석한 백선기·이욱기(2012)의 연구에서는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래픽에 있어서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피해와 사고 상황과 같은 정보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 예방과 대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보도 주제의 순위가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언론은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해 재난 소식을 다뤘지만, 실시간 피해지역 제공 등으로 피해를 줄이려는 보도보다는 피해 상황을 나열하는 보도 관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논의하였다.

유사하게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을 다룬 국내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한 양영신(2012)의 연구에서도 일본의 재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언론이 ‘흥미 중심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실제로 충격적인 영상을 반복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미 없는 일회성, 일화성 보도도 많이 이용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공익·공공성 높은 정보제공에는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재난·재해 특히 기상재해 관련 언론의 보도양상을 주요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언론이 재난·재해 상황에서 속보성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선정성, 언론의 환경감시기능 소홀, 심층적인 정보제공보다는 단발적이고 흥미위주의 정보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언론이 태풍과 같은 대형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뉴스의 보도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재해뉴스가 재구성된 현실을 수용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감수하기

어렵다.

2) 뉴스프레임의 개념과 재난재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프레임(Fram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고 부각시켜 일차적으로 수용자의 생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연관되는 경우 뉴스프레임은 뉴스언어에 의해 구성되어 전달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전반적 해석, 문제성 정도, 원인 인식, 해결책 모색 등의 방향을 틀 짓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언론학 분야에서는 갈등 이슈를 다룬 뉴스 분석을 위해 프레임 개념을 사용해 왔다. 프레임은 수용자가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Goffman, 1974)이다. 프레임의 정위는 다양하지만 뉴스 메시지의 큰 줄기이며 메시지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Entman, 1991).

뉴스프레임 연구의 영역에서 실제 수용자에 대한 논의로 발전한 뉴스프레임링 효과이론은 뉴스 스토리 자체의 구성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뉴스프레임을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으로 구성한 아옌가(Iyenger, 1991)는 주제적 프레임을 접한 뉴스 수용자가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체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회기구가 정책의 성패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일화적 프레임을 접한 뉴스 수용자가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개인의 일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개인에게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재난·재해 관련보도를 주제로 한 국내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뉴스프레임의 분석틀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 그 주제는 구제역 위기에서부터 환경재난, 일본대지진 원전사태, 그리고 기상재해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가적 위기상황으로서 구제역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을 다룬 양기근(2012)의 연구에서는 사례나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구제역 이슈를 다룬 ‘사건중심 프레임’이 해석적이고 평가적인 성격을 지니는 ‘주제중심 프레임’에 비해서 더욱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동일한 주제를 다룬 이민규·이예리(2012)의 연구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조성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이 주로 다루는 ‘위기대처 프레임’과 구제역 위기의 발생과 그 위기진행과정을 다루는 ‘위기발생 프레임’이 언론들의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원유 유출사고를 환경재난 차원에서 다룬 양정혜(2008)의 연구에서는 원유 유출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 중심이 되는 프레임들보다는 시민들의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나눔과 베품 프레임’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언론의 일본 대지진·원전사태 보도경향을 다룬 조은희(2012)의 연구에서는 ‘피해수준, 복구노력, 온정, 정치·경제 영향, 오염, 위험논란, 위험대상 확대’ 등의 7개 프레임 유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폭설과 폭우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경향) 노혁강(2011)의 연구에서

는 우리언론이 '일화중심적 프레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이용해 재해 내용을 전달하는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곧 기상재해 보도가 선정적이고 감정적이며 재해의 원인분석과 대책마련보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좀 더 끌 수 있는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상황전달에 집중하고 있고,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의존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고찰했지만 이렇듯 국내 재난·재해관련 보도 관련 연구에서도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뉴스프레임 분석의 틀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재난·재해와 관련한 우리언론들의 문제점(특정 프레임 치중, 일화 중심적이고 피해자들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춘 프레임을 빈번하게 사용 등)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는 성과를 얻고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다양한 기상재해들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기상재해들에 대한 위험과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언론이 글로벌 이상기온으로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는 기상재해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국내 언론이 제2의 방재기관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있어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 일간신문의 기상재해(태풍·폭우·폭염)보도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국내 주요 일간신문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주요 기상재해인 태풍, 폭우, 폭염에 대한 기사의 유형과 세부 내용, 그리고 기사의 사실성 분석을 통해 각 재해보도의 특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국내 일간신문의 기상재해(태풍·폭우·폭염)보도의 뉴스 정보원 활용은 어떠한가? 정보원이 뉴스기사의 전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빌려서 특정이슈를 설명하는가는 뉴스가 생산하는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재난·재해 보도가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 여전히 그러한 관행이 최근 재해보도에서도 현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정보원이 실제 기사의 전개에 있어 도움이 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병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국내 일간신문의 기상재해(태풍·폭우·폭염)보도의 프레임 특성(형식 프레임, 주제 프레임)은 어떠한가?

기상재해의 뉴스보도를 구성하는 뉴스 프레임은 내용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 재해보도에 대한 프레임의 틀을 해석하여 각 재해의 특성마다 차이점은 있는지, 프레임 특성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재해들 중에서 여름에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는 태풍, 폭우, 폭염의 보도행태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의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사를 전수 검색하고 이를 내용분석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추출/분석하였다.

Kerlinger(1986)는 내용분석에 대해 ‘변수를 측정할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차배근(1981)은 내용분석을 ‘메시지의 특정한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누가·왜·무엇을·어떻게·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추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분석대상인 각 신문사는 시장점유율과 열독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선,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4대 일간지 중에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은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www.kinds.or.kr)의 기사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서 기사를 검색하고 분석하였다. 추출된 자료의 분석에는 대학원생 3명으로 구성된 코더가 참여하였고,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성 충분한 사전교육과 테스트를 마쳤다. 코더 간 신뢰도³⁾는 0.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한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기사의 유형, 기사의 내용 등에 대한 유목들은 이경미·최낙진(2008)의 연구와 유재용·조윤경(2012)의 연구를 차용하였고, 연구진이 새로운 유목을 부가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기사의 사실성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

3) 코더간 신뢰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홀스티(Holsti, 1969)가 제시한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로 신뢰도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신뢰도(M=두 명의 코더 간 일치한 코딩 수, N1=코더1이 코딩한 수, N2=코더2가 코딩한 수)를 알아보았다. 실제로 내용분석에서 요구하는 신뢰도는 홀스티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 0.90 혹은 그 이상이 요구된다.

$$\text{신뢰도} = \frac{2M}{N1+N2}$$

다. 기사사실성 평가 유목 ‘사실중심적(정보원이나 정확한 출처 등의 객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해당 기사를 기술한 경우)’, ‘추측/예측 중심적(객관적 정보보다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추측하거나 예측하여 기술한 경우)’, ‘사실+추측/예측(객관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과 추측/예측한 내용이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한다.

<표 1> 기사유형의 분류

| 분류 | 세부내용 |
|-----------|-----------------------------------|
| 스트레이트 | 사실보도 중심의 기사, 객관적 사실의 나열이나 보도 |
| 해설/분석 | 사건의 원인과 결과, 현상, 전망 등에 관한 기사 |
| 기고문/칼럼 | 외부필진이 참여한 논설기사 |
| 기획/연재 | 해당 사건, 이슈를 기획이나 연재형태로 2회 이상 다룬 기사 |
| 인터뷰/대담/토론 | 인터뷰어와의 내용, 전문가의 대담이나 토론을 담은 기사 |
| 사설 | 신문사의 입장을 담아낸 논설 |
| 기타 |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기사 |

<표 2> 기사내용의 분류

| 분류 | 세부내용 |
|------|---|
| 재해정보 | 해당 재해에 대한 단순정보. 태풍(세기, 이동경로 등), 폭우(강수량, 강수지역 등), 폭염(주의 단계, 해당 지역 등) |
| 피해상황 | 생존 및 사망자 등 경과보고, 피해액 등 재난여파 |
| 복구활동 | 복구활동 관련 기사 |
| 원인 | 지역적 문제, 기후변화, 난개발, 예보오류, 재난시스템 문제 |
| 보상대책 |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 보상대책 및 보상내용 |
| 정책마련 | 안전시스템재정비, 재해재난대비시스템 보완, 전문가 영입 |
| 사전대책 | 해당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대책 |
| 기타 |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

다음으로 정보원의 분류에 대한 유목들은 이경미·최낙진(2008)의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김춘식, 2011; 양정혜, 2010; 양정혜, 2008)들에서 차용하였고, 정보원의 임무에 대한 부분 역시 새롭게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취재원이 뉴스기사의 전개를 의미 있게 하고자 수행 하였나 알아보는 코딩유목인 정보원의 임무는 크게 정보(사건이나 대상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국한)와 평가(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 옳고 그름의 구분을 판단하는 임무)로 구분된다.

<표 3> 정보원의 분류

| 분류 | 세부내용 |
|-------------|------------------------------------|
| 중앙정부 | 대통령, 정부 중앙부처(행안부, 건교부, 복지부 등), 서울시 |
| 지방정부(지자체) | 도지사, 각 도·사군(재난대책본부) |
| 기상청 | 기상청 공식발표, 기상청 담당공무원 |
| 유관기관 |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
| 일반기업 | 은행, 농협, 각 신문/방송사, 기업 등 |
| 국회/정당 | 국회의원, 각 정당 |
| 시민단체/자생조직 | 환경운동 연합, 종교단체 등 |
| 일반시민/지역주민 | 군인, 종교인, 시민, 학생 등 |
| 전문가 | 학자, 연구원, 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 |
| 기자취재 | 정보원 없이 기자의 단독취재 |
| 자료인용 | 문헌/보고서 등에서의 인용 |
| 해외기관(기관/언론) | 해외방재기관, 해외정부, 해외언론 등에서 인용 |
| 기타 |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

프레임 분석의 경우에는 뉴스 내용으로 접근한 프레임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프레임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세메코와 벨켄버그(2000)의 프레임분류인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 프레임’, ‘피해/대응정보 프레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표 4> 프레임의 분류

| 분류 | 세부내용 |
|-------------|---|
| 갈등 프레임 | 재해로 인해 벌어지는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등)과 재해 지역주민,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다루는 보도 |
| 책임 귀인 프레임 | 재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측면의 보도 |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대중이 재해에 대해서 갖는 불안감, 동정심, 호기심 등 감성적 측면 보도 |
| 경제적 결과 프레임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이나 부담 측면의 보도 |
| 위험 프레임 | 단기적 위험(전염병, 질한 초래), 장기적 위험(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등 재해상황을 사회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측면의 보도 |
| 피해/대응정보 프레임 | 해당 재해에 대한 단순 피해 및 대중이 대응(사전예방, 복구 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측면의 보도 |

IV. 연구결과

재해유형별로 언론사들의 보도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풍의 경우 총 340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폭염이 212건으로 두 번째이었으며, 폭우에 대한 보도건수가 가장 적은 64건으로 나타났다. 태풍보도 가운데 조선일보(35.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아(28.8%), 중앙(19.4%), 한겨레(14.1%)의 순이었다. 또한 조선일보가 폭우(32.8%)와 폭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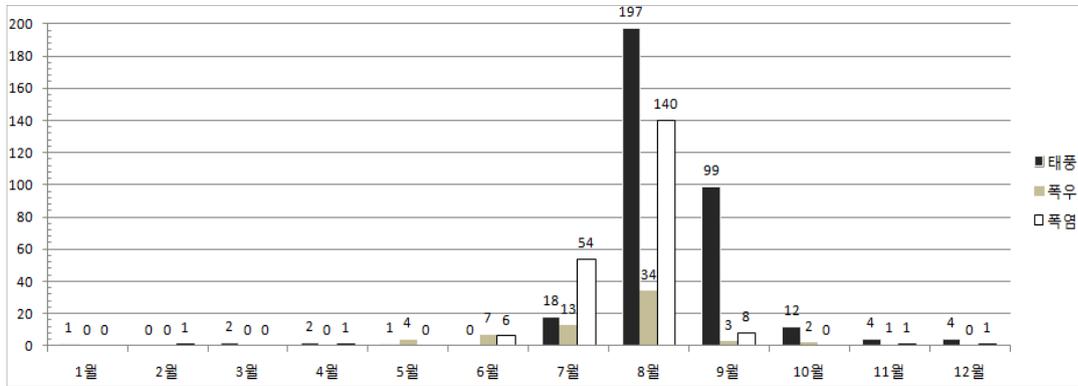
(42.0%)의 기사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해유형에 따른 언론사별 보도량

단위: 빈도(%)

| 재해유형 \ 언론사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태풍 | 122(35.9) | 66(19.4) | 98(28.8) | 54(15.9) | 340(100) |
| 폭우 | 21(32.8) | 20(31.3) | 14(21.9) | 9(14.1) | 64(100) |
| 폭염 | 89(42.0) | 42(19.8) | 42(19.8) | 39(18.4) | 212(100) |

재해유형에 따라서 월별 기사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세 가지 재해 모두 여름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7~9월에 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도 이러한 분포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덴빈’과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엄습하여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했던 8월에 기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 가지 기상재해 모두 해마다 반복되고, 많은 피해를 주는 주기성 있는 기상재해인 만큼 피해와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기사를 집중시키는 보도관행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2> 재해유형에 따른 월별분포

1. 재해보도 특성분석

우선, 태풍기사에 대한 기사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언론사를 합쳐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난 것은 ‘스트레이트’(89.4%)기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획/연재’(4.4%), ‘해설/분석’과 ‘기고문/칼럼’(동일하게 2.4%), ‘사설’(0.9%), ‘인터뷰/대답/토론’(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태풍보도의 기사유형

단위: 빈도(%)

| 언론사 \ 기사유형 | 스트레이트 | 해설/분석 | 기고문/칼럼 | 기획/연재 | 인터뷰/대담/토론 | 사설 | 전체 |
|------------|-----------|--------|--------|---------|-----------|--------|-----------|
| 조선 | 114(33.5) | 3(0.9) | 2(0.6) | 3(0.9) | 0(0) | 0(0) | 122(35.9) |
| 중앙 | 62(18.2) | 0(0) | 1(0.3) | 0(0) | 2(0.6) | 1(0.3) | 66(19.4) |
| 동아 | 85(25.0) | 1(0.3) | 2(0.6) | 10(2.9) | 0(0) | 0(0) | 98(28.8) |
| 한겨레 | 43(12.6) | 4(1.2) | 3(0.9) | 2(0.6) | 0(0) | 2(0.6) | 54(15.9) |
| 전체 | 304(89.4) | 8(2.4) | 8(2.4) | 15(4.4) | 2(0.6) | 3(0.9) | 340(100) |

폭우기사에 대한 기사유형 분석 결과도 역시 모든 언론사를 합쳐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난 것은 ‘스트레이트’(95.3%)기사였는데, 이는 태풍기사에 대한 분석결과와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해설/분석’, ‘기고문/칼럼’, ‘사설’이 동일하게 1.6%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획/연재’와 ‘인터뷰/대담/토론’의 기사유형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보도는 태풍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사유형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폭우보도의 기사유형

단위: 빈도(%)

| 언론사 \ 기사유형 | 스트레이트 | 해설/분석 | 기고문/칼럼 | 기획/연재 | 인터뷰/대담/토론 | 사설 | 전체 |
|------------|----------|--------|--------|-------|-----------|--------|----------|
| 조선 | 21(32.8) | 0(0) | 0(0) | 0(0) | 0(0) | 0(0) | 21(32.8) |
| 중앙 | 18(28.1) | 1(1.6) | 0(0) | 0(0) | 0(0) | 1(1.6) | 20(31.3) |
| 동아 | 13(20.3) | 0(0) | 1(1.6) | 0(0) | 0(0) | 0(0) | 14(21.9) |
| 한겨레 | 9(14.1) | 0(0) | 0(0) | 0(0) | 0(0) | 0(0) | 9(14.1) |
| 전체 | 61(95.3) | 1(1.6) | 1(1.6) | 0(0) | 0(0) | 1(1.6) | 64(100) |

폭염기사에 대한 기사유형 분석 결과에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난 것은 ‘스트레이트’(63.2%)기사였는데 이는 태풍과 폭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해설/분석(26.4%)’, ‘사설(3.8%)’, ‘기고문/칼럼(2.8%)’, ‘인터뷰/대담/토론(2.4%)’, ‘기획/연재(1.4%)’의 순이었다. 폭염보도의 경우 타 재해유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폭염사태에 대한 해설과 분석이 가미된 기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폭염보도의 기사유형

단위: 빈도(%)

| 언론사 \ 기사유형 | 스트레이트 | 해설/분석 | 기고문/칼럼 | 기획/연재 | 인터뷰/대담/토론 | 사설 | 전체 |
|------------|-----------|----------|--------|--------|-----------|--------|----------|
| 조선 | 53(25.0) | 31(14.6) | 4(1.9) | 0(0) | 0(0) | 1(0.5) | 89(42.0) |
| 중앙 | 21(9.9) | 16(7.5) | 1(0.5) | 0(0) | 1(0.5) | 3(1.4) | 42(19.8) |
| 동아 | 29(13.7) | 3(1.4) | 1(0.5) | 2(0.9) | 4(1.9) | 3(1.4) | 42(19.8) |
| 한겨레 | 31(14.6) | 6(2.8) | 0(0) | 1(0.5) | 0(0) | 1(0.5) | 39(18.4) |
| 전체 | 134(63.2) | 56(26.4) | 6(2.8) | 3(1.4) | 5(2.4) | 8(3.8) | 212(100) |

각 재해별로 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태풍보도는 해당 재해에 대한 단순한 정보들을 다룬 ‘재해정보(3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당 기상재해의 피해 경과보고를 다룬 ‘피해상황(34.7%)’, 피해로 인한 보상과 대책을 다룬 ‘보상대책(11.5%)’, 해당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책(5.6%)’, 재난재해의 시스템 정비와 보완 등과 관련된 ‘정책마련(4.4%)’ ‘복구 활동’과 ‘원인’이 동일하게 2.9%, 마지막으로, ‘기타(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풍보도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내용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대응과 그 원인진단보다는 대부분 피상적인 정보제공과 피해상황 보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태풍보도의 기사내용

단위: 빈도(%)

| 언론사 | 기사내용 | 재해정보 | 피해상황 | 복구활동 | 원인 | 보상대책 | 정책마련 | 사전대책 | 기타 | 전체 |
|-----|------|-----------|-----------|---------|---------|----------|---------|---------|--------|-----------|
| 조선 | | 44(12.9) | 43(12.6) | 3(0.9) | 1(0.3) | 12(3.5) | 9(2.6) | 6(1.8) | 4(1.2) | 122(35.9) |
| 중앙 | | 24(7.1) | 24(7.1) | 3(0.9) | 0(0) | 4(1.2) | 2(0.6) | 6(1.8) | 3(0.9) | 66(19.4) |
| 동아 | | 37(10.9) | 38(11.2) | 4(1.2) | 5(1.5) | 9(2.6) | 2(0.6) | 3(0.9) | 0(0) | 98(28.8) |
| 한겨레 | | 16(4.7) | 13(3.8) | 0(0) | 4(1.2) | 14(4.1) | 2(0.6) | 4(1.2) | 1(0.3) | 54(15.9) |
| 전체 | | 121(35.6) | 118(34.7) | 10(2.9) | 10(2.9) | 39(11.5) | 15(4.4) | 19(5.6) | 8(2.4) | 340(100) |

다음으로 폭우보도의 경우 ‘피해상황(35.9%)’에 대한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재해정보(31.3%)’, ‘사전대책(10.9%)’, ‘원인(9.4%)’, ‘보상대책(4.7%)’, ‘복구활동’과 ‘정책마련’이 동시에 3.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1.6%)’의 순이었다. 폭우보도의 경우도 역시 폭우로 인한 피해의 사후대응과 구체적인 원인진단을 다룬 기사들은 재해정보와 피해상황을 다룬 기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0> 폭우보도의 기사내용

단위: 빈도(%)

| 언론사 | 기사내용 | 재해정보 | 피해상황 | 복구활동 | 원인 | 보상대책 | 정책마련 | 사전대책 | 기타 | 전체 |
|-----|------|----------|----------|--------|--------|--------|--------|---------|--------|----------|
| 조선 | | 6(9.4) | 13(20.3) | 0(0) | 0(0) | 1(1.6) | 0(0) | 1(1.6) | 0(0) | 21(32.8) |
| 중앙 | | 9(14.1) | 4(6.3) | 1(1.6) | 3(4.7) | 0(0) | 0(0) | 3(4.7) | 0(0) | 20(31.3) |
| 동아 | | 5(7.8) | 4(6.3) | 1(1.6) | 1(1.6) | 0(0) | 0(0) | 2(3.1) | 1(1.6) | 14(21.9) |
| 한겨레 | | 0(0) | 2(3.1) | 0(0) | 2(3.1) | 2(3.1) | 2(3.1) | 1(1.6) | 0(0) | 9(14.1) |
| 전체 | | 20(31.3) | 23(35.9) | 2(3.1) | 6(9.4) | 3(4.7) | 2(3.1) | 7(10.9) | 1(1.6) | 64(100) |

폭염보도의 경우 가장 많이 다루어진 기사내용은 ‘재해정보(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상황(26.4%)’의 순이었으며, ‘정책마련(17.0%)’을 다룬 기사가 타 재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인(11.3%)’, ‘사전대책(4.2%)’, ‘기타(2.8%)’ 등의 순이었다. 폭염보도의 경우 태풍과 폭우에 비해서는 기사내용이 ‘재해정보’와 ‘피해상황’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마련’에 대한 기사내용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12년

여름의 폭염이 장기간(열대야 일수가 9.1일을 기록함) 발생하였으며, 지리적으로 그 피해지역이 가장 넓었던 기상재해(태풍과 폭우는 피해시간이 짧고 국지적인 피해가 더욱 컸음)여서 실제 국민들의 건강 위험과도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응마련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러한 부분이 언론의 관심으로도 이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표 11> 폭염보도의 기사내용

단위: 빈도(%)

| 기사내용 언론사 | 재해 정보 | 피해 상황 | 복구 활동 | 원인 | 보상 대책 | 정책 마련 | 사전 대책 | 기타 | 전체 |
|-------------|----------|----------|----------|----------|----------|----------|----------|--------|----------|
| 조선 | 35(16.5) | 25(11.8) | 0(0) | 11(5.2) | 1(0.5) | 10(4.7) | 3(1.4) | 4(1.9) | 89(42.0) |
| 중앙 | 11(5.2) | 12(5.7) | 0(0) | 0(0) | 0(0) | 17(8.0) | 1(0.5) | 1(0.5) | 42(19.8) |
| 동아 | 21(9.9) | 6(2.8) | 0(0) | 5(2.4) | 2(0.9) | 3(1.4) | 4(1.9) | 1(0.5) | 42(19.8) |
| 한겨레 | 9(4.2) | 13(6.1) | 1(0.5) | 8(3.8) | 1(0.5) | 6(2.8) | 1(0.5) | 0(0) | 39(18.4) |
| 전체 | 76(35.8) | 56(26.4) | 1(0.5) | 24(11.3) | 4(1.9) | 36(17.0) | 9(4.2) | 6(2.8) | 212(100) |

다음으로, 각 재해의 기사들이 실제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는지, 아니면 추측과 예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사실과 추측/예측을 모두 포괄하여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태풍보도의 평가 결과, ‘사실중심적’인 기사가 85.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실+추측/예측’이 13.5%, ‘추측/예측 중심적’이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풍보도의 경우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태풍보도의 기사사실성 평가

단위: 빈도(%)

| 기사의 사실성 언론사 | 사실중심적 | 추측/예측 중심적 | 사실+추측/예측 | 전체 |
|----------------|-----------|-----------|----------|-----------|
| 조선 | 102(30.0) | 0(0) | 20(5.9) | 122(35.9) |
| 중앙 | 57(16.8) | 2(0.6) | 7(2.1) | 66(19.4) |
| 동아 | 92(27.1) | 0(0) | 6(1.8) | 98(28.8) |
| 한겨레 | 41(12.1) | 0(0) | 13(3.8) | 54(15.9) |
| 전체 | 292(85.9) | 2(0.6) | 46(13.5) | 340(100) |

이러한 경향은 폭우보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역시 ‘사실중심적’인 기사가 89.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실+추측/예측’이 10.9%, ‘추측/예측 중심적’인 기사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보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폭우보도의 기사사실성 평가

단위: 빈도(%)

| 언론사 | 기사의 사실성 | 사실중심적 | 추측/예측 중심적 | 사실+추측/예측 | 전체 |
|-----|---------|----------|-----------|----------|----------|
| 조선 | | 18(28.1) | 0(0) | 3(4.7) | 21(32.8) |
| 중앙 | | 16(25.0) | 0(0) | 4(6.3) | 20(31.3) |
| 동아 | | 14(21.9) | 0(0) | 0(0) | 14(21.9) |
| 한겨레 | | 9(14.1) | 0(0) | 0(0) | 9(14.1) |
| 전체 | | 57(89.1) | 0(0) | 7(10.9) | 64(100) |

마지막으로, 폭염보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중심적’인 기사의 비율이 높았지만 42.5%로서 상대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실+추측/예측’이 5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추측/예측 중심적’인 기사는 2.4%로 가장 미미했다. 이렇게 추측/예측이 상당수 포함된 기사가 폭염보도에 많은 이유는 폭염의 경우 객관적인 기온의 측정 외에는 사람과 가축이 체감하는 폭염에 대한 민감성이 기사의 주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과 예측기사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4> 폭염보도의 기사사실성 평가

단위: 빈도(%)

| 언론사 | 기사의 사실성 | 사실중심적 | 추측/예측 중심적 | 사실+추측/예측 | 전체 |
|-----|---------|----------|-----------|-----------|--------|
| 조선 | | 20(9.4) | 2(0.9) | 67(31.6) | 0(0) |
| 중앙 | | 7(3.3) | 2(0.9) | 33(15.6) | 0(0) |
| 동아 | | 32(15.1) | 1(0.5) | 6(2.8) | 3(1.4) |
| 한겨레 | | 31(14.6) | 0(0) | 8(3.8) | 0(0) |
| 전체 | | 90(42.5) | 5(2.4) | 114(53.8) | 3(1.4) |

2. 뉴스 정보원 활용에 대한 특성분석

뉴스 정보원은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뉴스 정보원을 사용하는냐에 따라서 기사내용의 흐름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나 공신력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의는 재해보도에도 유효하다. 이에 각 재해보도에서의 정보원 활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풍보도에서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된 것은 ‘기상청(35.0%)’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지역주민(10.3%)’, ‘중앙정부(10.0%)’, ‘유관기관(9.1%)’, ‘지방정부(8.5%)’, ‘기자 취재(7.4%)’ ‘전문가(5.9%)’ 등의 순이었다. 태풍보도의 경우에는 ‘기상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일반시민/지역주민’의 피해에 많은 부분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수렴과 문제점 진단은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지적해온 재난·재해보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현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태풍보도의 뉴스 정보원 활용

단위: 빈도(%)

| 정보원 분류 \ 언론사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중앙정부 | 15(4.4) | 2(0.6) | 14(4.1) | 3(0.9) | 34(10.0) |
| 지방정부 | 14(4.1) | 8(2.4) | 4(1.2) | 3(0.9) | 29(8.5) |
| 기상청 | 37(10.9) | 25(7.4) | 38(11.2) | 19(5.6) | 119(35.0) |
| 유관기관 | 12(3.5) | 4(1.2) | 12(3.5) | 3(0.9) | 31(9.1) |
| 일반기업 | 13(3.8) | 0(0) | 5(1.5) | 1(0.3) | 19(5.6) |
| 국회/정당 | 1(0.3) | 0(0) | 0(0) | 0(0) | 1(0.3) |
| 시민단체/자생조직 | 1(0.3) | 0(0) | 1(0.3) | 4(1.2) | 6(1.8) |
| 일반시민/지역주민 | 6(1.8) | 12(3.5) | 9(2.6) | 8(2.4) | 35(10.3) |
| 전문가 | 9(2.6) | 5(1.5) | 3(0.9) | 3(0.9) | 20(5.9) |
| 기자취재 | 6(1.8) | 4(1.2) | 8(2.4) | 7(2.1) | 25(7.4) |
| 자료인용 | 4(1.2) | 3(0.9) | 3(0.9) | 2(0.6) | 12(3.5) |
| 해외(기관/언론) | 3(0.9) | 1(0.3) | 1(0.3) | 1(0.3) | 6(1.8) |
| 기타 | 1(0.3) | 2(0.6) | 0(0) | 0(0) | 3(0.9) |
| 전체 | 122(35.9) | 66(19.4) | 98(28.8) | 54(15.9) | 340(100) |

폭우보도에서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된 것은 ‘기상청(43.8%)’이었으며, 다음으로 ‘지방정부(20.3%)’, ‘중앙정부(12.5%)’, ‘기자취재(6.3%)’, ‘전문가’와 ‘유관기관’ 이 동일하게 4.7%, ‘일반시민/지역주민(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기상청’의 정보원 비중이 높았으나, 태풍과는 다르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정부기관이 중요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자의 직접취재인 ‘기자취재’와 ‘전문가’의 활용비중이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6> 폭우보도의 뉴스 정보원 활용

단위: 빈도(%)

| 정보원 분류 \ 언론사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중앙정부 | 2(3.1) | 1(1.6) | 3(4.7) | 2(3.1) | 8(12.5) |
| 지방정부 | 5(7.8) | 3(4.7) | 3(4.7) | 2(3.1) | 13(20.3) |
| 기상청 | 10(15.6) | 12(18.8) | 5(7.8) | 1(1.6) | 28(43.8) |
| 유관기관 | 0(0) | 1(1.6) | 1(1.6) | 1(1.6) | 3(4.7) |
| 일반기업 | 0(0) | 0(0) | 0(0) | 1(1.6) | 1(1.6) |
| 국회/정당 | 0(0) | 0(0) | 0(0) | 0(0) | 0(0) |
| 시민단체/자생조직 | 0(0) | 0(0) | 0(0) | 0(0) | 0(0) |
| 일반시민/지역주민 | 1(1.6) | 0(0) | 0(0) | 1(1.6) | 2(3.1) |
| 전문가 | 0(0) | 0(0) | 2(3.1) | 1(1.6) | 3(4.7) |
| 기자취재 | 3(4.7) | 1(1.6) | 0(0) | 0(0) | 4(6.3) |
| 자료인용 | 0(0) | 2(3.1) | 0(0) | 0(0) | 2(3.1) |
| 해외(기관/언론)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0(0) | 0(0) | 0(0) | 0(0) | 0(0) |
| 전체 | 21(32.8) | 20(31.3) | 14(21.9) | 9(14.1) | 64(100) |

폭우보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정보원으로 활용된 것은 역시 ‘기상청(22.6%)’이었으나, 그 비율은 태풍과 폭우에 비해서는 낮았다. 다음으로 ‘중앙정부(17.9%)’, ‘유관기관(16.5%)’, ‘기자취재(9.0%)’, ‘지방정부(8.0%)’, ‘자료인용(7.5%)’, ‘해외(기관/언론)(5.7%)’, ‘전문가(4.2%)’ 등의 순이었다. 타 재해들보다는 정보원의 활용도의 스펙트럼이 비교적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에 대한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폭염보도의 뉴스 정보원 활용

단위: 빈도(%)

| 정보원 분류 \ 언론사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중앙정부 | 12(5.7) | 7(3.3) | 7(3.3) | 12(5.7) | 38(17.9) |
| 지방정부 | 6(2.8) | 8(3.8) | 2(0.9) | 1(0.5) | 17(8.0) |
| 기상청 | 25(11.8) | 11(5.2) | 7(3.3) | 5(2.4) | 48(22.6) |
| 유관기관 | 27(12.7) | 5(2.4) | 1(0.5) | 2(0.9) | 35(16.5) |
| 일반기업 | 1(0.5) | 2(0.9) | 0(0) | 2(0.9) | 5(2.4) |
| 국회/정당 | 4(1.9) | 0(0) | 0(0) | 0(0) | 4(1.9) |
| 시민단체/자생조직 | 1(0.5) | 0(0) | 0(0) | 0(0) | 1(0.5) |
| 일반시민/지역주민 | 1(0.5) | 0(0) | 0(0) | 2(0.9) | 3(1.4) |
| 전문가 | 0(0) | 1(0.5) | 5(2.4) | 3(1.4) | 9(4.2) |
| 기자취재 | 6(2.8) | 4(1.9) | 5(2.4) | 4(1.9) | 19(9.0) |
| 자료인용 | 3(1.4) | 0(0) | 12(5.7) | 1(0.5) | 16(7.5) |
| 해외(기관/언론) | 2(0.9) | 4(1.9) | 3(1.4) | 3(1.4%) | 12(5.7) |
| 기타 | 0(0) | 0(0) | 0(0) | 3(1.4) | 3(1.4) |
| 전체 | 1(0.5) | 0(0) | 0(0) | 1(0.5) | 2(0.9) |

3개 재해의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원의 활용경향은 ‘기상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취재(인터뷰와 보도자료 등)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난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재난·재해보도에서 드러난 관행적 문제점은 여전히 있을 것 같았다.

다음으로 3개 재해보도에서 활용된 정보원들이 뉴스기사의 전개를 의미 있게 하는지를 분석한 정보원의 임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유목 분석분류에서도 언급했지만 해당 재해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있으면 ‘정보’, 해당 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의 가치판단에 관련이 있으면 ‘평가’로 분류하여 분석한바, 태풍보도의 경우 정보원들이 ‘정보(75.3%)’적 가치로 활용된 경우가 높았고, 반면 ‘평가(24.7%)’적 가치로 활용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8> 태풍보도의 뉴스 정보원의 임무

단위: 빈도(%)

| 정보원 임무 \ 언론사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정보 | 92(27.1) | 43(12.6) | 80(23.5) | 41(12.1) | 256(75.3) |
| 평가 | 30(8.8) | 23(6.8) | 18(5.3) | 13(3.8) | 84(24.7) |
| 전체 | 122(35.9) | 66(19.4) | 98(28.8) | 54(15.9) | 340(100) |

폭우보도의 경우 정보원들이 ‘정보(84.4%)’적 가치로 활용된 경우가 태풍보도에 비해서 현격히 높았고, 반면 ‘평가(15.6%)’적 가치로 활용된 경우는 미미한 편이었다.

<표 19> 폭우보도의 뉴스 정보원의 임무

단위: 빈도(%)

| 정보원 임무 \ 언론사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정보 | 18(28.1) | 17(26.6) | 13(20.3) | 6(9.4) | 54(84.4) |
| 평가 | 3(4.7) | 3(4.7) | 1(1.6) | 3(4.7) | 10(15.6) |
| 전체 | 21(32.8) | 20(31.3) | 14(21.9) | 9(14.1) | 64(100) |

마지막으로, 폭염보도의 경우 정보원들이 ‘정보(90.6%)’적 가치로 활용된 경우가 태풍과 폭우보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았고, 반면 ‘평가(9.4%)’적 가치로 활용된 경우는 매우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20> 폭염보도의 뉴스 정보원의 임무

단위: 빈도(%)

| 정보원 임무 \ 언론사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겨레 | 전체 |
|--------------|----------|----------|----------|----------|-----------|
| 정보 | 89(42.0) | 40(18.9) | 30(14.2) | 33(15.6) | 192(90.6) |
| 평가 | 0(0) | 2(0.9) | 12(5.7) | 6(2.8) | 20(9.4) |
| 전체 | 89(42.0) | 42(19.8) | 42(19.8) | 39(18.4) | 212(100) |

3개의 재해보도에서 활용된 정보원들은 뉴스기사의 전개를 풍부하고 의미 있게 하기보다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각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정책적 문제점 등의 논의들과 관련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정보원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뉴스 프레임 분석

태풍, 폭우, 폭염이라는 기상재해에 대한 각 일간신문의 뉴스 보도를 프레임의 주제적(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레임 유형은 앞서 논의했듯이 ‘갈등’, ‘책임 귀인’, ‘인간적 흥미’, ‘경제적 결과’, ‘위험’, ‘피해/대응정보’로 구분하였다.

태풍보도의 경우 모든 언론사에서 ‘피해/대응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60.6%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결과 프레임(17.9%)’, ‘인간적 흥미 프레임(8.8%)’, ‘위험프레임’과 ‘책임귀인프레임’이 5.3%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 프레임은 ‘갈등 프레임(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태풍보도에서는 해당 재해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피해/대응정보 프레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집단 간 갈등이나 인간적 흥미를 다루는 프레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문제시되어온 재해보도의 연성화, 재해보도의 실용성 부족 등의 비판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태풍을 사회적 위협으로 취급하는 ‘위험 프레임’의 기사가 적다는

것이 문제이며 향후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표 21> 태풍보도의 뉴스 프레임 유형(뉴스 주제 분류)

단위: 빈도(%)

| 언론사 | 프레임유형 | 갈등 프레임 | 책임 귀인 프레임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경제적 결과 프레임 | 위험 프레임 | 피해/대응정보 프레임 | 전체 |
|-----|-------|--------|-----------|------------|------------|---------|-------------|-----------|
| 조선 | | 0(0) | 9(2.6) | 10(2.9) | 28(8.2) | 6(1.8) | 69(20.3) | 122(35.9) |
| 중앙 | | 0(0) | 3(0.9) | 11(3.2) | 7(2.1) | 3(0.9) | 42(12.4) | 66(19.4) |
| 동아 | | 1(0.3) | 3(0.9) | 7(2.1) | 13(3.8) | 0(0) | 74(21.8) | 98(28.8) |
| 한겨레 | | 6(1.8) | 3(0.9) | 2(0.6) | 13(3.8) | 9(2.6) | 21(6.2) | 54(15.9) |
| 전체 | | 7(2.1) | 18(5.3) | 30(8.8) | 61(17.9) | 18(5.3) | 206(60.6) | 340(100) |

폭우보도의 경우, 모든 언론사에서 ‘피해/대응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68.8%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위험 프레임’과 ‘책임귀인 프레임’이 모두 9.4%, ‘경제적 결과 프레임(7.8%)’, ‘인간적 흥미 프레임(4.7%)’의 순이었다. ‘갈등 프레임’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우보도에서도 해당 재해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피해/대응정보 프레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폭우보도의 프레임 유형(뉴스 주제 분류)

단위: 빈도(%)

| 언론사 | 프레임유형 | 갈등 프레임 | 책임 귀인 프레임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경제적 결과 프레임 | 위험 프레임 | 피해/대응정보 프레임 | 전체 |
|-----|-------|--------|-----------|------------|------------|--------|-------------|----------|
| 조선 | | 0(0) | 3(4.7) | 2(3.1) | 2(3.1) | 0(0) | 14(21.9) | 21(32.8) |
| 중앙 | | 0(0) | 0(0) | 0(0) | 1(1.6) | 3(4.7) | 16(25.0) | 20(31.3) |
| 동아 | | 0(0) | 1(1.6) | 0(0) | 0(0) | 2(3.1) | 11(17.2) | 14(21.9) |
| 한겨레 | | 0(0) | 2(3.1) | 1(1.6) | 2(3.1) | 1(1.6) | 3(4.7) | 9(14.1) |
| 전체 | | 0(0) | 6(9.4) | 3(4.7) | 5(7.8) | 6(9.4) | 44(68.8) | 64(100) |

폭염보도의 경우도 역시 모든 언론사에서 ‘피해/대응정보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33.0%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비율은 태풍과 폭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다.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폭염보도에서는 ‘위험 프레임’이 30.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결과 프레임(17.0%)’, ‘인간적 흥미 프레임(8.0%)’, ‘책임귀인프레임(7.1%)’, ‘갈등 프레임(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폭염보도의 프레임 유형(뉴스 주제 분류)

단위: 빈도(%)

| 언론사 | 프레임유형 | 갈등 프레임 | 책임 귀인 프레임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경제적 결과 프레임 | 위험 프레임 | 피해/대응정보 프레임 | 전체 |
|-----|-------|---------|-----------|------------|------------|----------|-------------|----------|
| 조선 | | 0(0) | 7(3.3) | 3(1.4) | 16(7.5) | 26(12.3) | 37(17.5) | 89(42.0) |
| 중앙 | | 1(0.5) | 1(0.5) | 1(0.5) | 8(3.8) | 20(9.4) | 11(5.2) | 42(19.8) |
| 동아 | | 7(3.3) | 4(1.9) | 9(4.2) | 1(0.5) | 7(3.3) | 14(6.6) | 42(19.8) |
| 한겨레 | | 2(0.9) | 3(1.4) | 4(1.9) | 11(5.2) | 11(5.2) | 8(3.8) | 39(18.4) |
| 전체 | | 10(4.7) | 15(7.1) | 17(8.0) | 36(17.0) | 64(30.2) | 70(33.0) | 212(100) |

국내 언론사별로 재해보도의 뉴스 프레임 유형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뉴스 프레임 가운데 ‘피해/대응 정보 프레임’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국내 언론들이 그동안 문제시되어온 재해보도의 연성화 및 실용성 부족 등의 비판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소 뉴스 프레임 유형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폭염보도의 경우, 폭염을 사회적 위협으로 취급하는 ‘위험 프레임’을 다룬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해보도가 취해야할 보도의 준칙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의 여파로 기상재해가 전 세계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국가시스템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상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긴급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보도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기후의 이상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는 기상재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 가운데 2012년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 폭우, 폭염이라는 기상재해에 대한 주요 일간신문의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재해발생시 언론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언론들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현시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태풍, 폭우, 폭염 등의 기상재해에 대한 보도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기간에만 소나기식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재해는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지만 기상재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재해가 주로 집중되는 7~8월에 보도량이 급증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보도가 미미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앞으로 연중 특집기사나 연재기사의 형태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상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상재해에 관한 보도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형태의 기사가 많았고, 이에 비해 ‘해설/분석’이나 ‘기획/연재’ 등의 심층성 높은 기사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과 폭우에 비해 폭염보도에서는 다소 ‘해설/분석’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뉴스 보도의 형태는 기사 내용의 심층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해당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태풍 경로, 강수량, 폭염 일수 등)를 제공하는 ‘재해정보’, 해당 재해가 발생시키는 피해에 대한 내용(각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을 제공하는 ‘피해 상황’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는 기사들이 기자나 언론사의 추측/예측에 의해 작성되기보다는 실제로 사실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폭염보도의 경우 ‘사실+추측/예측’의 경우가 53.8%로 우세했지만, 태풍과 폭우 보도에서는 90% 가까운 비율로 ‘사실중심적’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보도가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뉴스 정보원 활용에 대한 분석 결과 뉴스 정보원의 활용경향은 기상재해에 대한 보도인 만큼 ‘기상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취재(인터뷰와 보도자료 등)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지속적으로 국내 재해보도에서의 뉴스 정보원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전문가’에 대한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상재해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가’ 활용이 더욱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정보원들이 뉴스기사의 전개를 의미 있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원의 임무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재해보도에서 활용된 뉴스 정보원은 뉴스기사의 전개를 풍부하고 의미 있게 하기보다 해당 재해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 정보원의 활용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부 접근이 용이한(기상청은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중앙 및 지방정부 역시 보도 자료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기자의 취재접근이 용이함) 뉴스 정보원에 편중된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 정보원의 접근 용이성은 기사에 대한 심층성을 반감시키고, 해당 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정책적 문제점과 관련된 민감한 논의를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해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한 결과, 언론사별로 재해보도의 프레임유형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피해/대응 정보 프레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내 언론이 재해보도의 감성화(피해주민의 참담한 모습, 피해의 처참한 광경 등을 다룬 보도), 재해보도의 실용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는 뉴스 프레임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염보도에서는 폭염을 사회적 위협으로 취급하는 ‘위험 프레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해보도가 가져야 할 긍정적 보도의 준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재해보도의 양상을 태풍, 폭우, 폭염, 폭설, 강풍 등으로 나누어 본질적으

로 분석했던 경향을 벗어나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 폭우, 폭염을 동시 분석하여 재해보도의 특징을 일반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데 있어 의의가 있다. 2012년에 발생했던 기상재해에 관한 뉴스 보도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최신의 재해보도의 특성에 대한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재해보도의 분석결과,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에서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최근 보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이 제2의 방재기관으로서 가치를 지니도록 그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언론의 중요한 과제이며 화두로서 제기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을 3개의 재해(태풍, 폭우, 폭염)로 한정하여 재해보도에 관한 좀 더 일반화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재해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대상을 신문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신문 역시 재해보도에서 중요한 매체이지만 최근에는 재해보도에서 방송·인터넷 매체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태풍, 폭우의 영향이 강력해질 때 실시간 긴급방송이 편성되면서 재해보도가 위험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추후에는 방송·인터넷의 재해보도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재난·재해 관련 연구들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상재해보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기상재해는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하며,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국내 언론의 기상재해보도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는 작은 계기가 되고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2. 2012년 이상기후 보고서. 서울: 기상청.
- 구수원. 1999. 재해방송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재. 2005. 자연재난보도의 특성 분석: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5(3): 1-9.
- 김성재. 200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방송통신연구. 56: 89-112.
- 김춘식. 2011. 일본의 '東北部 大震災'에 관한 신문(한국·일본·미국)과 텔레비전(한국·일본) 뉴스 내용분석.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백선기, 이옥기. 2012. 보도준칙을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 7-54.
- 송종길, 이동훈. 2003. 디지털 시대의 재해방송.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기근. 2012. 구제역위기 언론 보도 분석: 언론보도의 양적 특징, 프레임 및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6): 83-105.

- 양영신. 2012. 일본대지진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뉴스 프레임 분석 연구: KBS, MBC, SBS 메인뉴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혜. 2008. 환경재난 뉴스의 프레이밍: 국내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 스트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보도 사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9: 169-212.
- 양정혜. 2010. 위험사회의 의미 구성하기: 국내 언론의 신종플루 프레이밍 방식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7: 81-121.
- 유승관, 강경수. 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 140-169.
- 유재웅, 조윤경. 2012. 자연재난 보도에서 공식/비공식 정보원 이용에 관한 연구: 시민제작 콘텐츠 이용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67-84.
- 이 연. 2008. 선정보도에 피해주민 분통 선진화된 매뉴얼 시급. 신문과 방송. 2008년 9월호. 70-73.
- 이경미, 최낙진. 2008.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45(1): 97-129.
- 이민규. 2011. 재난 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미·일 재난보도 비교와 재난보도 원칙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52(2): 11-17.
- 이민규, 이예리. 2012. 국내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제역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2): 378-414.
- 전선형. 2010.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경제주평. 10(37).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조은희. 2012. 국내신문의 일본 대지진·원전사태 보도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23(1): 117-143.
- 지성우. 2011. 재난과 방송의 역할. 방송문화. 356: 10-15.
- 차배근. 1981.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채성혜. 2013. 미디어월드와이드: JAPAN- 유튜브와 트위터, 재난보도 패러다임 바꾼다(<http://kpfbo oks.tistory.com/1145>).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사회위기와 TV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Covello, V., V. Winterfeldt., and P. Slovic. 1986. Risk Communi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Risk Abstracts*. 3(4): 171-182.
- Entman, R. B.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Holsti, O.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Don Mill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Mileti, D. S. and C. Fitzpatrick. 1991. Communication of Public Risk; Its Theory & Its Application. *Social Practice Review*. 2(1): 20-28.
-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1989.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Powell, D. and W. Leiss. 1997. *Mad Cows and Mother's Milk: The Perils of Poor Risk Communication*.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 Press.
- Sandman, P. M. 1988. Telling Reporters about Risk. *Civil Engineering Magazine*. 58(8): 36-38.
- Semetko, H. A. and P. M. Valkenburg.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inger, E. & P. M. Endreny. 1993. *Reporting on Risk: How the Mass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Disasters, and Other Hazar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趙恒珉: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주)유플러스연구소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사회의 위험커뮤니케이션과 과학저널리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중이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전략(2008, 공저), 위험보도(2006, 공역), 문화콘텐츠 블루오션(2005, 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상(2004), 문화부장관상(2005), 보훈처장상(2005) 등을 수상했다(spes5@daum.net).

투 고 일: 2013년 04월 17일

수 정 일: 2013년 06월 26일

게재확정일: 2013년 06월 27일

A Study on Disaster Reports of the Korean Media

– Focused on Daily Newspapers' Analyses of Typhoon, Heavy Rains and Heat Waves –

Hang Min Cho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main daily newspapers' report attitudes toward meteorological disasters having brought about a great deal of damage in 2012, such as typhoons, heavy rains and heat waves, out of all the disaster reports of the Korean medi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ports,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Korean media tended to focus on reports about disasters during the period of a particular disaster, and most of the reports about disasters were basic information-centered 'Straight' type reports rather than in-depth reports. As a result of analyzing report content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Korean media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disaste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future similar disasters since most of the reports were focused on 'information about disasters' and 'damage extent'. As a result of analyzing news frames of disaster reports, this study found out there was no large difference in frame type of disaster reports between news media, and the majority of reports had 'damage/countermeasure information frames' substantially needed for readers having read news articles.

Key words: disaster reports, risk communication, news frame